# '골프여제' 박인비, 세계 1위 장기집권이냐 1주 천하냐

## '메디힐 챔피언십' 오는 27일 개막…2위 펑산산과 우승 경쟁

## 유소연, 스폰서 대회서 시즌 첫 승 도전…고진영도 2승 사냥

'골프 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통산 20승 달성과 세계랭킹 1위 굳히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떠난다.

박인비는 27일(한국시간)부터 나흘 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레이크 머서드 골프클럽(파72·6541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디힐 챔피언십'(총상금 150만달러)에 참가한다.

지난해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한 박인비는 올해 3월 건강한 모습으로 투어에 복귀, 전성기 못지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6개 대회에 출전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우승을 비롯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준우승, '롯데 챔피언십' 공동 3위, '휴젤-JTBC LA 오픈' 공동 2위 등 놀라운 성적을 쌓고 있다.

급기야 2015년 10월 내려놨던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까지 탈환했다. 무려 2년 6개월 만에 여왕의 자리를 되찾았다.

메디힐 챔피언십은 박인비의 랭킹 1위 장기집권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대회다. 평균 랭킹 포인트 7.49점으로 2위 펑산산(중국·7.04)과 격차가 0.45점에 불과하다. 이번 대회 성적 만으로도 순위가 뒤집힐 수 있어 '1주 천하'로 끝날 수도 있다.

박인비가 시즌 두 번째 우승과 함께 통산 20승을 달성한다면 2위와 격차를 더욱 벌리며 확실한 독주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박인비는 "세계랭킹 1위가 사실 올해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좋은 플레이에 대한 선물 같아서 기분이 좋다"면서도 "랭킹 간 격차가 별로 없어 매주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1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주 LA 오픈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 신설 대회다. 유소연(28·메디힐)의 스폰서인 국내 화장품업체 L&P 코스메틱이 후원한다.

올 시즌 성적이 신통치 않은 유소연은 스폰서 대회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LA 오픈에서 4위를 하며 시즌 두 번째 톱10에 들었다.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다.

놀라운 루키 시즌을 치르고 있는 고진영(23·하이트진로)도 우승 경쟁자 중 한 명이다. 올 시즌 7개 대회에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 포함 톱10에 5차례 들었다. 2주 전 조부상을 당한 고진영은 할아버지 영전에 우승 트로피를 바치겠다는 각오다.

'맏언니' 지은희(32·한화큐셀)도 시즌 첫 다승자가 되기에 충분하다. 올 시즌 아직 우승이 없는 김인경(30·한화큐셀), 양희영(29·PNS), 이미림(28·NH투자증권), 최운정(28·볼빅), 김세영(25·미래에셋), 이미향(25·KB금융그룹) 등도 마수걸이 승리에 도전한다.

태극 자매군단의 강력한 대항마는 24주 만에 1위를 내준 펑산산이다. 아직 우승은 없지만 평균 60대 타수를 기록 중인 6명 중 1명으로 기량 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8년 만에 LPGA 투어에서 자매 골퍼 우승에 성공한 태국의 쭈타누깐 자매도 우승 사냥에 나선다. 오랜 우승 갈증을 푼 언니 모리야는 2주 연속 정상에 도전한다. 올 시즌 톱10에 5차례 성공한 동생 에리야도 시즌 첫 승이자 통산 8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셸 위(미국), 제시카 코다(미국),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 브룩 헨더슨(캐나다) 등 올 시즌 우승자도 총출동한다.

한편, 올 시즌 주춤한 박성현(25·KEB하나은행)과 전인지(24·KB금융그룹)는 이번 주 휴식을 택했다.

# LA타임스 "류현진, 트레이드 후보서 다저스 선발 주축"

## 어깨 수술 후 최고 모습 보여…달라진 입지 거론

류현진(31)이 LA 다저스의 주축 선발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LA타임스의 앤디 매컬러프 기자는 24일(한국시간) 독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류현진을 언급하면서 류현진은 사치세로 인한 트레이드 후보였다고 밝혔다.

다저스는 지난해 시즌 중 다르빗슈 유를 영입했다. 월드시리즈에서 선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다르빗슈는 월드시리즈에서 부진했다. 월드시리즈에서의 난조에도 다저스는 다르빗슈와 재계약을 희망했다.

다르빗슈의 높은 몸값은 다저스에게 부담이 됐다. 다르빗슈와 계약을 했다면 사치세를 피하기 위해 트레이드는 불가피했다. 당시 트레이드 후보가 류현진, 야스마니 그랜덜, 로건 포사이드였다.

매컬러프는 "류현진과 그랜덜, 포사이드가 트레이드 후보였다"며 "류현진은 현재 팀내 선발투수 중 가장 잘 던지고 있고, 그랜덜은 최고의 타자다. 포사이드는 아직 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매컬러프는 트레이드 후보였던 선수가 맹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흥미로워했다. 류현진이 어깨 수술 후 최고의 모습을 보이자 달라진 입지를 거론한 것이다.

류현진은 올해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99로 활약하고 있다. 22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7이닝 2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한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반면,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은 다르빗슈는 4경기에 선발 등판해 승리 없이 2패에 평균자책점 6.86을 기록했다.

뉴시스

# 순천시 축구팀, 제57회 전남도민체전 13년 만에 우승

## 결승전서 해남군과 승부차기 승부 끝에 1위

제57회 전남도민체전에서 순천시 축구팀이 13년만에 우승의 감격을 안았다.

순천시 축구팀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영암군 공설운동장 옆 A, B구장에서 토너멘트로 22개 시, 군팀이 열전을 벌였다.

순천시 축구팀은 20일 11시20분 1회전에서 목포시를 4대1로 물리치고, 오후 4시20분 2회전에서 담양군을 2대0으로 물리치고 8강에 안착했다.

21일 8강전에 나선 순천시는 오후 3시 진도군을 7대1로 대파하고 4강에 들어섰다.

22일 4강에 나선 순천시는 오전 9시 나주시와 접전을 벌였으나 0대0으로 비겨 승부차기로 나주시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섰다.

이날 오후 1시 결승전에사 B구장에서 올라온 해남군을 맞아 전, 후반 득점없이 비겨 승부차기 승으로 대망에 축구종목 우승을 안았다.

조강훈 순천시축구협회장은 "우승에 목말랐었는데 13년만에 정상에 올라서니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눈물이 난다"면서 "최원서 전무를 비롯한 축구협회 임원 및 이사들께 감사 드리며 그동안 예선전부터 많은 축구인, 이흥후 체육회 상임 부회장님, 열심히 응원해준 응원단에게도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은 "순천시 우승을 축하하고 아무런 사고없이 경기가 진행되고 도 축구협회가 경기단체에 주는 우수경기단체에 선정돼 기쁘다"며 "3일동안 수고한 도 축구협회 고문, 임원, 이사, 심판진들 노고를 치하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57회 전남도민체전 축구는 우승 순천시, 준우승 해남군, 공동3위 신안군, 나주시가 수상하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에 순천시 김상혁 선수가 수상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추신수, 6경기 연속 안타 마감…타율 0.237

## 텍사스, 9회초 동점 상황서 대량 실점 4-9 패배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36)의 연속 경기 안타가 6경기에서 멈췄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 4타수 무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지난 17일 탬파베이 레이스전부터 6경기 연속 안타 행진 펼친 추신수는 이날 무안타에 그쳤다. 시즌 타율도 0.237(93타수 22안타)로 낮아졌다.

한편, 텍사스는 3-3으로 팽팽하게 맞선 9회초 무려 6점이나 내줘 4-9로 패했다. 텍사스는 시즌 8승16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뉴시스

# 토트넘, 권창훈에게 관심?…손흥민 덕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 권창훈(24)에게 은근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 더선은 24일(한국시간) "토트넘이 프랑스 리그1 디종FCO의 오른쪽 윙어 권창훈을 보기 위해 스카우트를 파견했다"고 전했다.

영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심 수준이다. 실제로 '가십'이라며 보도했다. 그렇다고 무의미한 건 아니다.

권창훈은 이번 시즌 31경기에서 9골 2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홀리오 타바레스(11골)에 이은 팀 내 득점 2위다.

토트넘이 권창훈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손흥민이다. 2015년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해리 케인,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등과 함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주요 자원이다.

더선은 "손흥민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무엇보다 부상이 없다. 이런 점에서 국가대표 동료 권창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썼다.

# 완도군청 역도 실업팀 선수 전원 금메달 획득

## 전라남도체육대회서 2년 연속 역도 종합1위 달성

완도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영암에서 개최된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완도군청 역도 실업팀이 역도부문 2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완도군청 역도 실업팀 선수 전원이 금메달을 들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자 +105kg급 이양재(23세)선수는 용상?인상?합계 395kg을 들어 올렸으며, 남자 105kg급 임진강(19세)선수는 합계 315kg, 남자 62kg급 이상혁(21세)선수는 합계 245kg, 여자 53kg급 김은영(21세)선수는 합계 110kg을 들어 올리는 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완도군청 간판선수인 이양재 선수는 지난해까지 발목 부상 등의 요인으로 성적이 부진했으나, 지난 3월 강원도 양구에서 개최된 2018 한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 2관왕에 오르며, 재기에 성공해 역도 실업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허진(39세) 감독은 "선수들이 평소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던 노력의 결과로 좋은 기록을 냈다"며 "오는 5월에 출전할 전국역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이번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역도 1위, 테니스 2위, 정구·농구 3위, 검도·바둑 5위를 차지하며 종합 16위를 기록했다.

완도군청 역도 실업팀은 지난 2015년 1월에 창단하여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 참가하여 각종 기록을 쏟아내고 있으며, 완도군 홍보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